

# 미래식품산업 동반성장 꾀한다

### 바이오진흥원, 풀무원과 전북 농식품기업 동반성장 협력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성장 지원·전후방 연계 활성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30일 식품 중견기업 풀무원과 전북 농식품기업 동반성장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바이오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풀무원식품 전영훈 대표와 바이오진흥원 김동수 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식품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전후방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으로 선도 역할을 하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결됐으며, 앞으로 전북 유망 농식품 발굴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생산기공, 유통, 공동프로젝트 기획 등 비즈니스 전 분야 상호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농식품 판로 확대 및 농식품산업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라북도 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유망품목 발굴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미래 식품산업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인력, 정보, 서비스 등 교류 확대 ▲풀무원의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사업 기획 및 협력 ▲상호 이해와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공동 협력 등을 이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바이오진흥원은 도내 우수 농식품



기업 협력 수요 발굴과 정보제공 및 연계를 지원하고, 풀무원은 자사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판로확대 지원 및 ESG 가치 실현 영역 확장을 통해 지역 상생과 동반성장에 도움을 주고 전북 농식품 소비 촉진을 힘쓸 예정이다. /최대희 기자

한편 풀무원은 2021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가 발표한 상장기업 ESG 등급평가에서 국내 식품기업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통합 A+(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풀무원 전영훈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품질, 우수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전북의 우수 농식품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풀무원식품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원장은 "풀무원과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농식품기업 간의 활성화를 통한 농식품 소비촉진과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우수 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재)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과 지난 29일 전주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디지털트윈 데이터 제공, 콘텐츠 현실감 'UP'

### LX,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과 메타버스 콘텐츠 활성화 협약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디지털트윈 데이터로 현실감 넘치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재)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과 손잡고 게임을 통한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재)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원장 최용석)과 지난 29일 전주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메타버스형 가상성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모전을 함께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LX공사는 디지털트윈 데이터를 제공하며, 참여 업체들은 이를 활용해 게임의 몰입감을 극대화하고 아바타를 통해 현실경험을 확장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공모전을 통한 2곳 게임업체를

선정해 최대 3억 원(진흥원 2억·LX 1억)까지 제작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모 접수는 4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LX공사는 전주시와 협력해 2018년부터 기반 구축이 완료된 '디지털트윈 전주'를 구축하고, 하천관리, 재난재해예측 등 국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 모델을 구축한 바 있다.

최용석 원장은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전북의 특화된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기업에는 신성장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이어질 희망한다"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전북농협과 전북지리산낙농농협은 30일 남원시 이백면 낙농농가에서 깨끗한 축산농장 방취림 조성사업' 식재 행사를 실시했다.

## 축사 경관 개선으로 환경문제 해결 효과

### 전북농협, 남원 낙농가서 '깨끗한 축산농장 방취림 조성'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지리산낙농협(조합장 이안기)은 30일 남원시 이백면 낙농농가에서 '깨끗한 축산농장 방취림 조성사업' 식재 행사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민과 상생하고, 자연친화적 정경축산업 구현을 위해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전북농협과 전북지리산

낙농협 임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축사방취림 확충을 위한 방취림(홍가시 나무) 식재 및 농장주변 환경 정비활동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이번 사업은 농협 경제지주에서 묘목 50%를 지원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축산농가 50호를 대상으로 7,328여 그루를 식재 했고, 올해에는

77호를 대상으로 5천여 그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축사 경관개선은 물론 축사방취와 미세먼지 저감, 탄소발생량을 억제하는 등 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국민에게 사랑받고 상생하는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축산에 종사하는 우리 스스로가 환경을 보존하고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며 "앞으로 매주 실시하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 캠페인을 통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 실천을 유도에 환경친화적 축산업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전북 중기 지원협의회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도내 30개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단체로 구성된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30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올해 1월 28일 시행된 '지역중소기업법'에 따른 것으로,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북도를 비롯해 전북지방환경청, 전북지방노동청, 전북지방병무청, 고용부 전주지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등 30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도내 중소기업 지원 협의회는 별도의 전담기구나 법적 근거없이 기관별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법적 성격을 지닌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단체인 공동 협력체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사업 및 협·단체별 주요 현안사항, 지원사업 등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러·우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대희 기자

## 도내 소재부품기업 대상 전주기 지원 공모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2022년 기능성 소재부품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대상기업 공모에 나섰다.

2022년 전북 기능성 소재부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탄소소재, 엔지니어링·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부터 시생산 및 완제품 개발, 인증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약 7억원에 19개사에 지원해 매출액 55억원 증가 및 신규채용 17명 이상을 목표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공인된 기준, 전북에 사업자 주소를 가진 기업으로, 작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매출이 50% 이상 소재부품 전문기업이다.

도내 중소 소재부품기업을 대상으로 ▲기능성 소재를 이용한 부품설계 및 시제품 제작 ▲성형·금형 등 제조공정, ▲상용화를 위한 인증 취득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 신청사부터 전문가인 기술다타를 1:1 매칭해 기업진단부터 프로그램 및 지역 내 연계 지원, 사후관리까지 밀착 지원해 수혜기업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은 기술다타 방문보고서 및 선정평가위원회 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공모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5일 6시까지이다.

선정평가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수혜기업 19개사 내의 선정 및 기업당 3천만원 내외로 협약 체결 이후 11월 30일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ji@jbpark)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 한우농장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화

### 농진청, '똑똑한 농장 축사로' 한우 관련 기능 개선

축산농가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데이터)를 프로그램화해 관리하면 농장 경영, 가축 관리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체계적인 정보가 반영돼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농진청(청장 박병홍)은 축산농가의 데이터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농장 종합지원 시스템 '똑똑한 농장 축사로'의 한우 관련 기능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한·육우, 젖소, 돼지, 가금 등 주요 축종을 대상으로 가축 사육부터 출하 후 관리까지 농장의 기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축산 관련 유관기관의 가축 정보를 농장 단위로 통합·연계해 농장주가 해삼(HACCP) 기록, 개체, 도체 등급, 번식, 경영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번에 개선된 축사로 '한우'의 도체등급관리 메뉴에는 씨수소(KPN) 정보 정보를 연계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를 활용해 농장에서 출하한 개체의 도체 성적을 토대로 씨수소의 유전능력을 확인하고, 씨수소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체관리에는 그동안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받았던 개체 기본 정보 이외에 개체별 구제역 백신 접종정보(접종일, 접종 후 경과일) 데이터를 추가로 연동해 비접종 개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희 기자

아울러 경영관리에는 가축 출하에 따라 발생하는 가축 운반비 항목이 추가됐으며, 개체별 출하 시기를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도 도입했다.

개선된 기능의 자세한 내용은 '축사로' 사용자 안내서(매뉴얼) 개정판에 실릴 예정이다. 책자는 농진청(농업과학기술원) 누리집(www.nrd.go.kr)에서 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한편 각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우농가가 축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5일부터 축사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사로 프로그램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시작 화면에서 축사로(http://chksarans.go.kr)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하면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축사로 사용자인 손봉규 한우농장은 "개선된 축사로를 이용하면 인공수정에 사용한 씨수소별 출하된 개체의 성적을 비교해 어떤 씨수소를 선택해야 개량 목표에 가까워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축사로의 새로운 기능을 비롯해 농장 단위별 다양한 데이터를 농장주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신산업 중심지 새만금, 스웨덴 기업들도 '눈독'

### 차별화된 투자혜택에 높은 관심 표명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30일 새만금을 찾은 주한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와 주한덴마크대사관, 스웨덴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만금에서의 사업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 행사에는 에이비비(ABB), 엔벡, 아트라스콧 등 스웨덴의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해 말 준공한 300MW 규모의 육상태양광과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시찰하고, 33센터 전시장에서 주요 사업내용을 청취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그린뉴딜을 주제로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과 미래차 산업을 집중화하는 신산업 협력지구 조성 상황을 설명하고, 기업에 제공하는 우수한 투자혜택과 제도적 지원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소개했다.

스웨덴 기업 관계자들은 RE100을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그린 산업 등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가 활발히



새만금개발청은 30일 새만금을 찾은 주한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와 주한덴마크대사관, 스웨덴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만금에서의 사업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구축되고 있는 새만금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법인세 감면과 저렴한 전기 임대용지 제공 등 차별화된 투자혜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새만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희 개발전략과장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은 3GW에 달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인근에 둔 세계 유일의 산업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RE100이 구현되는 산업이다"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새만금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처다"라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보조기기센터, 맞춤 지원 협력기관 선정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이 위탁 운영하는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가,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진행하는 맞춤 보조기기 지원사업' 협력기관에 선정됐다.

30일 예수병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에게 ▲3D 프린터 및 신소재를 활용한 맞춤 개조제작 서비스 제공 ▲3D보조기기 공공 플랫폼 설계도 및 지원사례 공유 ▲신규 3D 보조기기 개발 및 제작을 진행한다.

특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는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

로 보조기기 서비스 상담 및 평가 후 3D 프린터를 통해 출력된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보조기기센터 이정후 센터장은 "도내의 장애인과 노인에게 3D프린터를 신소재를 활용한 서비스 진행을 통해 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수병원은 AI(인공지능), 스마트 돌봄 IoT(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생활지원 관련보조기기 제작, 보행기 제작,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등 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대희 기자